

영어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좌담회

특집

영어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좌담회



영어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좌담회

특집

이장무 총장은 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당면과제를 ‘국제화’라고 밝혔다.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 바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이다. 본교의 영어강의는 2007년 1학기 474개에서 2007년 2학기 478개, 2008년 1학기 592개로 양적으로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강의의 약 12~13%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8학년 신입생부터 ‘영어(외국어) 진행 강좌 의무이수제’의 대상이 되면서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전공 3학점(1강좌)을 포함해 평균 9학점(3강좌) 이상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본교의 변화는 이미 영어강의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몇몇 대학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고려대는 2003년 9월 임용된 신입교원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능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2007년 전체 강의 중 35%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강대, 고려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영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마다 영어강의 바람이 불게 된 이유는 외부적으로 영어강의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 각 학교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 국내 학습자들에 대한 국제 감각의 배양, 영어가 중시되는 사회적 요구 등 우리나라 대학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체계적인 영어강의 지원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영어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 및 학생 좌담회’를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걸쳐 총 8차례(교수 좌담회 4회, 학생 좌담회 4회) 진행하였다. 영어강의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① 영어강의의 필요성과 준비사항, ② 영어강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③ 영어강의 운영의 성과, ④

홍성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영어강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의 입장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좌담회에는 대부분 2강좌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들과, 좌담회 참여 교수의 추천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특집은 좌담회의 내용을 토대로 영어강의의 필요성, 영어강의의 장점과 단점, 영어강의 개선전략 등을 정리해 봄으로써 본교의 영어강의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강의의 필요성 : 국제적 전문인력의 양성

영어강의에 대한 좌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적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영어강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영어강의가 일반적인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목적을 성취시키는 동시에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국제화를 위한 영어강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수들 사이에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관한 확고한 공감대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학과에서는 ‘신임 중 외국경험이 있는 교수’가 영어강의를 도맡아하기도 하였고, 일부 학과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해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강의 확대에 인한 모국어 강의 수의 축소가 ‘학생 선택권의 배제’나 ‘대학차원에서 영어강의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저희는 수의사를 양성하는 과이기 때문에 학부생들은 “우리가 영어로 진료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가 영어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영어로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설득해 달라.”는 애

기를 하더라도요. 그 얘기도 전혀 의미 없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교수좌담회)

‘일을 시작할 때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로소피(Philosophy)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인터내셔널 시티즌(International Citizen)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영어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등등 여러 가지 영어강의를 학교 전체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교수좌담회)’

영어강의의 장점 : 언어가 바뀌면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수와 학생들이 지적하는 영어강의의 장점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영어강의는 ‘영어공부를 평생 해야 되겠다는 지적 자극’을 주었다고 말한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인생의 최대 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 처음에 전공수업을 영어로 선택하기 싫었는데, 전공이 다 영어 강의라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어요...(중략)...영어가 처음에는 안 들리니까 두려운데, 공대 같은 경우는 단어는 보통 다 영어에서 가져온 거니까 조사랑 동사만 영어로 바꾸면 그게 그대로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학생좌담회)’

학생들이 지적하는 영어강의의 또 다른 장점은 강의실 분위기가 보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존대말이 없는 영어의 특성상 교수자와 학습자가 보다 편안한 관계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 했을 때 좋은 점은 평소에는 이런 거 물어도 되나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영어로 했을 때는 일단 그렇게 전혀 없이 교수님께 편안한 질문, 별의별 것까지 다 물어지는, 그랬을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분위기로 효과가 컸어요.(학생좌담회)’

‘영어강의를 하면 좋은 점이 교수님한테 존댓말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이예요. 교수님 대하기가 좀 편해요. 이런 것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도 그냥 조금 거리감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표현의 어려움과 거리감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여서 좀 편한 것 같은데.(학생좌담회)’

영어강의의 단점 : 영어와 전공지식의 이해, 두 마리 토끼 잡기

교수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영어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 수준의 전공지식의 습득과 강의수강을 통한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영어강의를 통해 모두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수들은 영어강의를 통해 의도했던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공교과의 경우 ‘한 페이지마다 의미가 심오하여 한글로 눈을 맞추면서 이런이런 뜻인지 알아들었는지 묻고 해야 간신히 이해하는 걸 영어로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지식의 전달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못 잡았거든요.…(중략)…영어강의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장점은 영어발표를 들을 수 있는 정도 혹은 자기가 영어발표를 할 수 있는 정도, 결국은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정도라고만 얘기했지 자기가 뭔가를 많이 얻었다고 얘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점은 결국은 영어 때문에 전공지식의 습득이 어려웠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교수좌담회)’

‘처음에 영어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70~80명 정도 됐는데 집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잠도 아무도 안자고 똑바로 쳐다봐요. 이런 게 영어강의의 효과구나, 영어강의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2~3주 강의를 하고나서 질문할 때 앞에서 제일 열심히 들은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도 이해 못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하는거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왜 똑바로 쳐다봤냐면 영어로 지금 무슨 소리하는가 알아듣기 위해서 했지 배우고 있는 과목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그게 재미가 붙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교수좌담회)

학습자 역시 영어강의가 심화된 전공지식이나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였다. 교수자의 설명이 쉽고 간단한 영어 표현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수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맥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교수님들은 한글 강의를 하시면서 다 하시는 내용이 영어 강의를 하면서는 좀 빠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시험을 치게 되면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운게 없어서.(학생좌담회)’

‘저희가 원래 진도를 100을 잡았으면 50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인 학생 입장에서 특강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게 알고 가겠다고 듣는 건데 수업은 정반대로 진행이 되었죠.(학생좌담회)’

‘영어라서 끝나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 e자가 붙으면 학점을 따고 싶거나 혼자 공부를 할 거라면 들어도 상관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수님 경험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걸 얻고 싶으면 영어는 비추천이죠. 그래서 e자가 붙으면 꺼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론 과목들은 e자가 붙으면 잘 안 듣게 되는 거 같아요.(학생좌담회)’

또한, 영어강의가 학점을 관리하는데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도적으로 영어강의가 절대평가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일부 교수자의 경우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외국거주 경험이나 재외국민, 유학생과 경쟁하였을 때 학점 부담이 심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영어 강의에 대해서 짐을 먹는 것이 학점문제인 것

같아요. 영어강의면 못 알아듣는 것이 많을 테니까 학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중략)…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영어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점을 다 잘 줄 리가 없잖아요. 학점은 똑같이 주고 영어로만 강의를 하시니까 학생들은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는 학점을 잘 줄 것이다 하는 보장이 있으면 학생들도 좀 더 쉽게 영어 강의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좌담회)

이와 같은 영어강의로 인한 교수학습의 질 저하 문제는 '강의언어' 로써 영어가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수자들의 경우 유학을 다녀오거나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어도 모국어 강의에 비해 영어강의는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그에 비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큰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강의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영어교수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습자들 역시 영어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된 깊이 있는 전공서적을 읽거나 심도 깊은 설명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또한, 영어보고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높거나 유학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영어 실력 차이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수자 지원 전략, 학습자 지원 전략, 정책적 노력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강의 개선 전략 I: 영어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자 지원 전략

영어강의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교수자 지원 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어강의를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법

을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교수자들이 효과적인 영어 강의를 준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공지식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영어와 한국어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어실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질문이나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어수업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어로 인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좋은 영어강의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어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영어강의 준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등 영어강의 교수법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둘째, 영어강의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생한 강의기법들은 처음 영어강의를 준비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교수자들에게 좋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의 중도탈락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강의내용, 과제, 평가방법, 한국어·영어 강의 비율이 적힌 자세한 강의 계획서를 올리거나, 첫시간에 평가준거를 명확히 설명하여 영어실력이 평가를 좌우하지 않음을 공지하거나, eTL에 수업 전에 미리 핸드아웃을 올려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업 후 다양한 보충자료를 올려 부족한 전공지식을 만회하도록 하거나, TA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을 면담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파악하고 영어과제 등을 피드백 해준다거나, 소집단 영어 토론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돕는 등의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셋째, 영어강의에 대한 교수자의 인센티브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교수는 영어강의를 준비하는데 모국어 강의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하였다. 그에 비해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비 200만원과 1.33학점 인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영어강의 지원비는 같은 과목당 1회에 걸쳐 2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제 좋은 영어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매학기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영어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연속

적으로 계속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1년, 혹은 2년에 한번씩 개설되는 경우 꾸준한 강의개발이 어려우며, 계속적으로 영어강의를 개설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과 다른 교수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1.33학점의 인정도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개설 강좌의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영어 진행 강좌 당 학생 수의 제한, 학생들의 전공이해를 돕고 영어강의 수강을 지원하는 TA 배정, 단과대학별 Classroom English Manual 개발, 영어강의 관련 규정·지원사항·관련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영어강의 개선 전략 II: 영어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자 지원 전략

학생들의 원활한 영어강의 수강을 돕기 위한 학습자 지원 전략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학생들이 외부의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영어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양 및 전공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강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회화능력, 보고서 등의 글쓰기 능력, 발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준별로 정교화된 교양과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의 경우, 영어강의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1학년 전공탐색 과목 등을 일정부분 영어교과로 구성하여 신입생 때부터 영어강의에 익숙해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로 해야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혹은 학과)을 선별하여 교육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자발적인 영어강의 수강을 유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영어강의의 경우 절대평가 및 성적표에 영어강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크게 유인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평

가방법은 교수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부 영어강의는 상대평가를 선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일정 강좌의 경우 S/U 형식이나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일정학점 이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영어강의에서 학점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영어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방안이 제안되었다.

셋째, 교내 영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영어글 쓰기 교실의 상담 기회 확대 및 홍보 강화, 교환학생이나 영어 여름학교 등의 기회 확대, 영어를 이용한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인증, 두레문예관에 있는 영어카페 같은 장소의 확대, 언어교육원 이용시 재정적 지원 등이 교내 영어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넷째,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영어강의 수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석학의 특별 강연 횟수의 확대, 정기적인 영어 공개 강좌 운영, 인기 있는 영어 교양 강좌 개발 등 충분한 지적 자극을 통해 향후 국제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영어학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느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영어강의 개선 전략 III : 영어강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영어강의의 체계적 정착을 위한 학교차원의 정책적 노력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영어강의 확대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교에서 영어강의가 왜 필요한가, 영어강의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영어강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및 지원방법을 정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영어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어강의의 정착을 위해 학교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교수의 수를 늘림으로써 교수자의 영어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영어강의의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축소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영어 및 전공지식을 도와줄 수 있는 TA를 통해 개

별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고, eTL 활용을 활성화하여 수업시간의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고 자료 및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보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영어강의의 개선을 위하여 현행 강의평가를 영어강의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의 개선을 위해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실제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기 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영어강의를 했을 경우 모국어강의에 비해 ‘이해도’ 등의 측면에서 강의평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의평가를 교수 업적 평가보다 강의 개선을 위한 용도도 국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좌담회에서 나왔던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본 좌담회는 영어강의에 대한 첫 번째 좌담회로써 학내 영어강의를 공론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좌담회의 결과를 토대로 본교 영어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교수법 및 학습법 가이드 작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어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008년 여름방학] 단과대학별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과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매체 제작 방법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운영 기간 : 여름방학 기간 (2008년 7월 1일 ~ 8월 31일 (매주 화, 수요일))
- 강좌 운영 :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 외 5강좌)
- 문 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880-1327/5418, parksu01@snu.ac.kr)